

월요논단



남 동우 제주대학교 교수·예비역 해군 준장

‘낭갈라 402’함 승조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대형사고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낭갈라 402’함과는 오래전 작은 인연이 있어 이번 소식이 더욱 놀라웠다. 41년 전 1980년 독일에서 건조된 배수량 1400t급 ‘낭갈라 402’함은 2009년~2012년 간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에서 창정비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필자는 동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우리 해군의 두 번째 이지스함인 울곡이이함 인수합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낭갈라 402’함의 합장 등 일부 승조원들과 만남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전원 사망이 확인된 25일 동부 자바주(州) 수라바야의 해군 현지에서 승조원 유족을 만나 국가와 정부, 국민을 대표해 승조원들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희생자들에게 1계급 특진 및 잘

라세나 훈장 수여는 물론, 자녀가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유족이 원하는 장소에 집도 지어줄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희생자와 유족들을 존중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이 느껴져 그나마 마음이 훈훈해 짐을 느꼈다.

동형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또한 이런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6월 ‘30년 280만 마일 안전항해 무사고’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는 등 지금까지는 순탄한 항해를 해오고 있다. 지휘관들의 리더십과 치밀한 교육·훈련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도 잘해 나가리라 기대하지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협소한 공간 등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해 승조를 기피하는 장병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기피 현상이 단지 인력 운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기와 정신력에도 영향을 미쳐 안전과 직결되

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것이다. 처우 개선은 물론이고 획기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영원한 이별을 예감한 듯 “가지 마, 아빠”라며 유독 떼스던 희생자 아기의 사연, 앞서 잠수함 탑승자들이 불렀던 ‘작별의 노래’, 인도네시아 발리 하늘에 나타난 잠수함 모양의 적란운 등과 관련된 언론 보도는 우리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지난 30일 인도네시아 해군과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가족들은 깊은 바다에 꽃을 뿌리며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소중한 가족과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필자 또한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동시에 우리 잠수함 부대의 안전항해를 기원한다. 이런 와중에 아직까지도 진실공방에 매몰돼 깊은 상처를 받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천안함 사망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사설

농업통계 제각각... 제대로 된 농정 불가

농업정책의 가장 기본이 될 농작물 통계가 기관마다 제각각이어서 농가 혼선에도 제대로 된 농정을 기대 못할 상황이다. 매년 농작물 과잉생산 가격폭락 산지폐기라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현실에 지적받아 온 농정부재와는 별개 문제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제주산 채소류 재배면적이 행정·기관별로 제각각이고, 현실과 틀린 통계를 근거로 한 농정에 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보니 농정부재 이전 농정의 기본을 의심해야 할 지경이어서다.

농업통계는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통계청과 제주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두 ‘삼인삼색’으로 불릴만큼 통계치를 보여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를 보면 올해 제주산 마늘 재배면적은 통계청 1306ha, 제주도 1600h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875ha로 제각각이면서 너무 큰 면적차를 보였다. 양과 역시 통계청 880ha, 제주도 642ha, 농촌경제연구원 1161ha로

제각각이다.

농작물 통계 차이는 월동무와 당근 등 타 작물도 비슷한 상황인데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각 조사기관이 서로 다른 조사방식으로 통계 차이의 불가피성을 내세울 수 있지만 현장의 재배면적이 행정·기관별로 제각각이고, 현실과 틀린 통계를 근거로 한 농정에 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보니 농정부재 이전 농정의 기본을 의심해야 할 지경이어서다. 농정은 통계를 기준으로 수립·집행하다보니 현장과 괴리된 정책을 내게 되고, 결국 제 효과를 못 내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반복하는 형국이다. 농민들은 농업통계조차 믿지 못할 현실에 분노한다.

정부와 제주도는 빠른 시일내 농작물 통계 조사방식의 단일화 또는 조사방식의 고도화 등을 통해 추락한 통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깊은층 지하수도 위협받아 우려된다

제주의 생명수가 위협받고 있어 큰 일이다. 일부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는 이미 먹는물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가 최근 지하수 수질 전용측정망을 통해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심도에 따라 지하수의 오염도가 큰 차이를 보였다. 일부 지역의 경우 100m 깊이의 지하수도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림읍 상명리 3개소(5공) 등 도내 22개소(34공)에 지하수 수질 변화를 실시간 관측할 수 있는 수질 전용측정망을 설치했다. 제주도가 수질 전용측정망을 통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질산성질소 등 지하수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지하수 굴착 심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질산성질소가 가장 높게 나온 지역은 한림읍 명월리리 심도 80m 측정망에서 31.0mg/l를 기록했다. 먹는물 기준치(10mg/l)를 무려 3배 초과한 것이다. 반면 같은 지역 심

도 187m 측정망에서는 질산성질소가 2.6mg/l로 나타났다. 또 한림읍 청수리 지역의 심도 95m 측정망은 질산성질소가 10.3mg/l로 파악됐다. 특히 같은 지역 150m 측정망에서는 질산성질소가 9.8mg/l로 관측되는 등 심도가 깊은층의 지하수도 먹는물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

물론 제주 전역의 지하수 수질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구좌읍 세화리(71m 측정망 6.3mg/l)와 안덕면 감산리(70m 측정망 9.0mg/l)는 비교적 수질 상태가 좋은 편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 공공하수관로가 없는 중산간 지역에 들어선 건축물이 적잖아 지하수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하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다. 때문에 지하수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뉴스-in

“6·25 참전유공자 깊은 존경과 감사”

도 보존청장 유공자 가정 방문

○...이동희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재가복지대상자인 6·25 참전유공자 가정을 잇따라 찾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위문품을 전달.

이 청장은 지난 7일 제주시 한림읍과 한경면 등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가정을 각각 방문해 안부를 묻은 뒤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

이 청장은 “도 보훈청은 5월 한달간 고흥 재가복지서비스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이성민기자

계약재배 마늘 수매가는?

○...도내 마늘 주산지마다 이달 초부터 수확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전국적으로 마늘 생산에 상당량 과 재고물량 감소 소식에 지역농협과 계약재배한 농가에선 곧 결정될 수매가에 높은 관심.

그동안 마늘제추협의회에서 마늘 수매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올해는 지역농협별로 각각 수매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며 더욱 촉박.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마늘 주산지농협에서 먼저 이사회를 열어 수매가를 결정하면 다른 농협들도 처한 상황에 따라 가격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코로나 하루빨리 종식 기대

○...코로나19로 지난해 취소됐던 방선문축제가 올해는 비대면 개최 방침에 따라 진출입로 방역부스 설치 등 코로나 확산방지에 주력하며 참여인원 제한 등 규모도 축소.

지난 8일 개막된 방선문축제는 비대면에 따라 축제위원회는 축제 전 과정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

안동우 제주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상황이지만 도민의 무사 안녕을 바라는 축제의 염원처럼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소망한다”고 언급. 이윤형기자

열린마당

길 잃음 등 산악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하자!



강 동준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따뜻한 봄으로 접어들면서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이 많아지고 있다. 산악 사고란 산을 오르다 안전 부주의 등으로 사망, 부상 등을 당한 사고를 말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즐기는 산행이지만 늘어나는 등산객만큼이나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산악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행 전 철저한 준비와 안전수칙 등을 알아보자.

첫째, 만일의 사고로부터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행 전 준비운동과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근육을 풀어야 한다. 또한 당일 본인의 몸 상태, 컨디션 등을 고려해 산행코스를 정해 무리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나 기온 급하강에 대비해 체온유지를 위한 가벼운 외투와 초콜릿, 견과류, 과일 등 비상식량을 준비해서 위급 상황 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지정 장소 이외의 길을 이용해 암벽 붕괴, 추락 등 위험지역으로 등산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넷째, 산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등산로에 배치된 산악위치 표지판을 주의 깊게 살펴봐 위치 표지판을 발견하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자신의 위치를 알아두고 응급상황 시 표지판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안전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

이외에도 산행 안전수칙은 많고 많지만, 기본적인 수칙들만 지켜도 큰 부상이나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등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등산용품보다 철저한 안전준비를 숙지하며 지키는 것이다. 앞으로도 산행을 즐기면서 부상으로 인한 근심, 걱정보다는 마음의 평안이 오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고용범(주)진성 대표이사 아버지 제주고공 수현(천만기업 대표이사·향년 74세)께서 서기 2021년 5월 6일 7시 5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5월 10일(월요일)
발인일시: 2021년 5월 11일(화요일)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상소리 선영
부인 현정숙
아들(배) 고용호 며느리 한은정
아들 고용범 박은미
딸 고미순
계좌번호: 현정숙 10-03-040862(제주은행)
고용범 954-02-086064(농협)
연락처: 고미순 010-2500-9861
고용범 010-8661-2770

부고 강경보(롯데케미칼연구소 소장) 아버지 진주강공 승천(국가유공자·향년 83세)께서 서기 2021년 5월 9일 11시 4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5월 10일(월요일)
발인일시: 2021년 5월 11일(화요일) 오전 6시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부인 양정자
아들 강경보 며느리 황경아
딸 강향선
강향이 사 위 앤써니
강향임 김은수
강윤정
손녀 강예원
강예진
외손자 김동현 외손녀 김나현
김민건 송연우
송민준
연락처: 김은수 010-2400-5619
강윤정 010-9835-5161

부고 현동수(주)동민건설, 삼진포장건설) 아버지 연주현공 성민(지영일·향년 83세)께서 서기 2021년 5월 9일 3시 28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5월 11일(화요일)
발인일시: 2021년 5월 12일(수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부인 김완선
아들 현동수 며느리 임영순
동근 한동숙
딸 현순화 사 위 고영배
순일 오창민
순애 고경주
연락처: 현동수 010-3698-8583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평문공 영도(예로 니모·향년 7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5월 10일
부인 김정순 며느리 최한수
아들 문정도 사 위 한석준
딸 문아혜사 고형석
문수정
문희정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양천허공 안근(향년 8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5월 10일
부인 이경순
아들 허석훈 며느리 고주연
명훈
딸 허경미 사 위 강상철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물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